

주안에게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06

Jun. 2021
Vol.9 No.06

- 대면예배 특집
- 영커플 / EM / 교육부
- 목장 / 새가족 소개
- 간증 / 기고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대면예배의 기쁨을 활짝 핀 웃음으로 만끽하고 있다. <양영 기자>

반가움과 기쁨 '성전 가득히'

■ 대면예배 재개(특집 2, 3, 4면)

6월 15일 모든게 개방된다는 행정명령에 따라 주안예교회의 예배도 온라인예배에서 대면예배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기다림의 간절함이 거의 한계에 이르렀던 주안예교회의 성도들은 첫 대면예배 시간부터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배당을 가득 채웠으며,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을 대할 때는 전쟁에서 돌아온 전우들 마냥 그간의 안부를 묻기에 여념이 없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도 어느때보다

힘이 솟는 모습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하셨고 예배를 마친 후, 그냥 헤어짐에 아쉬워할 마음들을 미리 짐작이라도 하신듯이 주방에서는 음식의 대가인 권사님들을 주축으로 많은 봉사자들의 손길이 더해져서 모두가 그리워했던 주안예교회만의 특별식인 육의 양식들이 공급 되었다.

6월 한달은 축제의 형식으로 매주 메뉴를 바꾸어가며 섬기기로 하신 권사님들의 분주한 손놀림에서도, 회복의 안도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3면에 계속>

| 오희경 기자 |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 대면예배 소감

영적인 안일함에서 일어나 벨엘로 올라가자

대면 예배를 위해 기도하던 중 나는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갈급해하며 사모함으로 기다렸는가?

30년 전쯤, 모태 신앙으로 자랐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탐심과 탐욕, 교만과 우상에 가득 찼던 죄인 중의 괴수와 같은 나를 찾아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내 안에 한 생각이 자주 떠올라 모기만 한 작고 짧은소리로 “하나님! 예배가 이게 다인가요?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나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새로운 교회로 강권적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배와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터질 듯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며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반응하고자 몸부림치는 바로 옆의 성도들을 볼 때 충격받으며 도전이 되었습니

다. 그때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바로 옆의 성도들과의 교체 또한 예배의 연속이라는 소중한 진리를 배우며 준비된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한자를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깊이 간직된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8년 전쯤, 주안예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주의 말씀속에서 마치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예배를 기다리는 설렘이 있고, 예배인도자들의 열정과, 사모함이 가득한 얼굴들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들을 위해 의자를 더 준비하던 섬기는 분들의 즐거운 미소, 예배를 마치고 헤어지기 아쉬워 맥다방에 모여 서로를 바라보며 격려하고 시간이 늦어도 힘들거나 지친 모습이 아닌 기쁨이 가득하여 하나님



박만규 안수집사

의 행하심을 나누던 모습들 속에서 도전을 받고, 섬김을 주고받으며 교체로 드리던 예배들을 생각해봅니다. 오래전처럼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한국에 가보지 못한 것에 무기력함과 멀리 미국에 산다는 핑계로 지난날 부족했던 효에 마음이 무겁고, 온라인 예배의 편안함이 몸에 익숙해지며 영적 무기력과 안일함에 빠졌던 나를 돌아보며 이제 벨엘로 다시 올라가자고 가족들을 재촉하며 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속에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만나주셨던 하나님과의 소중한 추억과 성도들과 기쁨으로 교체하던 행복한 시간들을 기억하며,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집밥보다 맛있는 ‘주안에교회 밥’ 소문났어요



■ 대면예배 소감

성실한 예배자의 삶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려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지를 다시한번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제는 1년 3개월 정도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편재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는 성막인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아무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성전에 올라가 드리는 예배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였을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성전에서 드릴 때보다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것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팬데믹이란 상황도 분명히 하나님의 주



이성근 안수집사

권아래 허락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메시지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깨달아 알도록 노력하며, 우리가 당장 불편하고 수고스럽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리를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지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열납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이전에 드렸던 예배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길 원하며, 다시는 성전이 닫히는 상황의 예배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현실과 상황이 온다 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성령께 간구하고 나아가길 원하며, 다시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송이꿀보다 달아요



〈1면서 계속〉 힘들었던 시기도, 회복의 시기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허락하심에 따라 진행되어 감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하며, 절제 속에서 발견한 “감사” 또한 오래도록 간직하는 일상으로의 회복이 되길 소망해본다.

주의 전에 심기운 감람나무처럼 무럭무럭



■ 대면예배 소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로 인한 팬데믹으로 15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대면예배가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개방이 되면서, 예배당으로 들어서는 기분은 감사함 뿐이었습니다. 교회문을 활짝 열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도 발열검사나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소독 등을 철저히 지키도록 신경을 써주신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은 그리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윤동운 권사

무엇보다 분당에 들어가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었고, 영적으로도 나태해진 저를 대면예배를 통해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안정시켜 주시고 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일상에서 만나게되는 문제들 또한 기도를 통하여 열매를 맛보게하는 원동력을 주셨습니다. 대면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성전에 올라올수 있는 환경을 끝까지 지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대면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교역자님들과 봉사자분들의 수고에 다시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베들레헴 사역국(벨리)

무료 커피 500잔 ‘불티난 브니엘’

드디어 6월 첫째 주일 날부터 기다리던 대면예배가 시작됨과 동시에 사역국들의 움직임이 무척 바빠졌다. 특히 베들레헴사역국(국장: 김준억 장로)에서는 매주일마다 460개의 빵을 만들고 있다.



토요일에 밀가루 반죽을 시작으로 주일새벽에 따끈하고 고소한 옥수수빵을 국장님이 직접 만들어서 브니엘카페로 배달하여 주신다. 그러면 브니엘사역국은 뜨거운 커피 250잔, 아이스커피 250잔을 준비하여, 전교인을 대상으로 빵과 함께 커피를 무료 봉사하고 있다.

팬데믹에 지쳐있던 성도님들이 돌아와서 다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봉사하는 우리도 힘이 난다.
| 임용자 기자 |

■ 은퇴감사예배/ 이현보 안수집사(밸리)

아버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 13일 주일 오후, 라크라센타 조용한 주택 뒷마당, 소박하지만 감동적인 모임이 있었다. 최근 은퇴하신 이현보 집사님(이준 권사님) 아들 딸들이 아버지의 평생 노고와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모아 최혁 담임목사님과 인근에 사는 교우들을 초청해 은퇴감사예배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조카가 사회를 보고, 막내 사위의 기타 반주로 은혜로운 찬송을 부른 후, 장남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감사, 축복이 넘쳐났다.

최혁 목사님은 사무엘상 16장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사울왕을 위해 40여년을 달려 와 지쳐 쉬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 오신 하나님이 '이제 나(하나님)를 위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는 마지막 사명을 부여 받고 다시 일어나 다윗 왕조를 열어 간 것처럼, 평생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 온 집

사님도 그냥 쉬는 은퇴가 아닌 이젠 하나님을 위해 인생 3막을 시작하라는 권고의 메시지를 전하셨다.

이어 이현보 집사님은 인삿말을 통해 평생 지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드리고 어린 시절 교회 다닐 때, 두루마기를 차려 입은 노장로님이 젊은 전도사의 가방을 대신 들고 함께 심방 다니시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오른다고 하며 은퇴 후 교회와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싶다는 바램을 전했다.

이준 권사님과 자녀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과 후식을 들며 모두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 조용대 기자 |

■ 교우동정/ 임병재 · 문수인 집사

어머니 · 장모님 모시고 호도관광

밸리채플 임병재, 문수인 집사 가족이 Grand Canyon National Park 지역 관광을 다녀왔다. 한국에서 가족 방문차 오신 어머니님과 장모님을 위한 호도 관광이었다고 한다. 보통 사돈 관계일 때는 좀 어렵게 생각하고 서먹한 경우가 많은데 이 두분은 한국에 계시면서 자주 서로 초청하여서 며칠씩 지내다 갈 정도로 친근하게 지내고 있다.



어머니 오세연 권사께서는 30년 가까이 보육원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귀한 일을 하셨는데 7년동안이나 아들을 어려운 고아들과 함께 숙식을 하게 하시면서 힘든 그 생활을 체험하게 하셨다 한다.

본 기자가 LA채플 시절 주일날이나 수요일 예배 시 교회 파킹랏 개폐기를 열고 교인들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일을 1년이상 매주 성실하게 봉사하는 옛된 청년을 보고 참 충실

한 주의 일꾼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님의 이런 훌륭한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이 아들들을 반듯하게 키우신 것이란 생각이 든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임 집사의 아들 Philip 과 딸 Adla가 수영을 배우지 몇 년 됐는데 시험 성적이 미국 또래들 중 상위권에 들 정도로 하는데 장래 미국 수영계의 별이 될 수 있기를 축하하며 기원 드린다. | 나형철 기자 |

■ 숨은 봉사자/ 신수련 권사

조용한 배려

대면예배를 준비하면서 밸리채플의 주방도 일년여만에 주방의 구실을 찾아가고 있었다.

매주 토요일 이른아침부터 주일 오후 늦은시간까지 음식 준비에 뒷정리와 청소를 감당하라 많은 권사님들의 섬김이 있었지만, 거의 존재감이 없이 일에만 몰두하시는 한 권사님이 눈에 들어왔다.

원래는 MP채플을 섬기시다 지금은 BP채플을 섬기고 계시는 신수련 권사님이 그 분이시다.

힘든 일도 말없이 해내시는 것도 부족해서, 낮은 밸리채플의



주방임에도 불구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모두가 빠져나간 오후 시간에 뒷정리와 바닥청소 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시기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마주하면서, 신수련 권사님의 섬김이 정말 귀하게 다가왔다.

늘 조용하신 편이라서 일부러 찾지 않으면 어디에 계시는지도 잘 모르는 그 권사님이 계시서 봉사하는 내내 마음 한편이 든든했다는 분들의 말씀도 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말을 앞세우기 보다는 행동을 앞세우는 신수련 권사님 같은 분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를 지키시는 권사님과 함께하는 연습무대가 오래가길 바란다.

| 오희경 기자 |

■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 기도를 다시 들려주신 하나님

저는 2013년에 낯선 미국에 와서 저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줄 교회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리고 2016년, 하나님께서 주안예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매주 나오는 교육부 선생 모집 광고를 보았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꾸준히 하였고 유치원 원장이셨던 어머니에게 교육부에서 섬기자고 권유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어서 어머니가 섬기시던 IC JOY 유치부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IC KIDZ 에 선생님이 필요하게 되어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IC KIDZ 를 섬기게 된지도 벌써 약 5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모두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주안예교회는 항상 IC KIDZ 와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루 하루 지날수록 커지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저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올해,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릇일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뜻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난주간 새벽예배 때 제가 얼마나 죄인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것이 유대인이 아



배이레 전도사

닌 나라를 것을 깨닫고 저의 진짜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숨도 쉬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같은 존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야하는 존재입니다. 이 작은 죄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꼭 불러주세요.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 기도를 기억하지 못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중에 저를 부르실 때 이 기도를 내게 다시 들려주세요.”

그때 드렸던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감정까지 함께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나 같은 존재를 사용하신다는 감사함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아이들의 나이였을 때에 교회에서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주며 IC 교육부를 위해 겸손히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의능력으로



이정미 전도사

“헤세드”의 사랑은 택하신 자녀를 추적하셔서 되찾으시고 하늘 나라의 상속권을 확정 지으시는,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사이즈의 사랑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다듬고 깎아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야생마와 같은 저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평사원은 하나님이 저를 먹이시고 훈련하시는 현장이었고, 그 현장에서 저는 제사장보다 더 성심을 다해 섬겼던 역대하 29장에 기록된 레위인들과 같이 교회를 섬기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던 2020년 초에 하나님은 제 삶에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때 주신 시편 18편의 말씀은 부족하고 어리석은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 띠우시고, 나의 길을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시며,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늦 활을 당기게 하실 것이며, 그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자라는 타이틀 자체가 버겁고 어려웠던 저에게 하나님은 어릴 적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며 저를 위로하시면서 함께 걸어가자고 초청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발 위에 나의 발을 얹고, 아버지의 양 손을 꼭 잡고, 아버지의 눈에 나의 눈을 맞추고,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춤추듯 걸었던 것처럼 함께 걸어가자고,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함께 춤추듯 걷자고 저를 격려하십니다.

부족하고 단점 투성이인 제가 사역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유임을 다시 고백하며 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 동심에 새겨진 복음의 씨앗

6월 17일 부터 20일까지 Treasure 라는 주제로 VBS가 진행 되었습니다. (부제: God knows u, God hears u, God comforts you, God choose u.)

교사와 아이들 총 42명이 참석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며,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선택하셨다는 스토리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나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크래프트와 이미지스테이션을 통해 말씀을 쉐어 하였습니다.

ICY 부서에서는 2주간 서로 힘을 합쳐 찬양과 율동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어 VBS 를 더욱 빛나게 해 주었습니다. 포래들을 통한 배움이 가장 뛰어난 학습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이었습니다.

비대면으로 ZOOM을 통해 진행하였지



만 아이들의 생동감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비대면 VBS 가 마지막이길 바라며 2022년 VBS 는 오프라인으로 교회에서 전국 잔치처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도 합니다.

2개월에 걸쳐 수고해주신 전도사님들

과 선생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의 스태프들의 도움의 결과 입니다. 또한 가장 큰 조력자로 협조 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IC KIDZ 친구들이 있어야지만 빛나는 VBS 입니다. 친구들 또한 수고 많았어요~~ | 안경숙 권사 |

영커플 ‘아가페’ 공동체로 새출발

지난 6월 12일, 영커플 전체모임이 열렸다.

‘아가페’ 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영커플 목장의 친교를 위해 Tom & Laura Park 집사님 부부가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하고, 점심과 다과를 나누며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특히 준비한 Petting Zoo 를 보고 환호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모두를 미소 짓게 했다.



■ Mission of the Month

Father's Day Sock Drive

ICCC EM celebrated Father's Day this year by donating bundles of socks to Shepherd Church's Father's Day Sock Drive in support of Hope of the Valley Rescue Mission.

Seeing the collection of socks grow was an eye witness account of God's economy of multiplication that evoked the scene of Jesus feeding the five thousand with a boy's lunch of five loaves and two fish. It was certain that Jesus came from his time dimension to EM and placed the humble purchases and pledges of individual members in his hands. Surely, Jesus looked up to the heavens and gave thanks for what God was about to do. No member had fathomed that pairs would soon be-



come dozens of pairs to even basketfuls of socks that will help meet a basic need of vulnerable neighbors in our community.

As the bundles of socks get conveyed to Shepherd and to the homeless shelter, there is a joyful expectation that is founded on the outcome of what is recorded in Matthew 14:19-20 - "Taking the five loaves and the two fish and looking up to heaven, he gave thanks and broke the loaves. Then he gave them to the disciples, and the disciples gave them to the people.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and the disciples picked up twelve basketfuls of broken pieces that were left over."

| Monica Kim |

■ Financial Stewardship Series

'Money is a very useful tool, however...'

Personal financial stewardship represents the care, conservancy, planning, attention, upkeep, and management of our financial resources and choices beginning at the individual level.

Romans 11:36.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for him are all things. To him be the glory forever! Amen."

Christian financial stewardship means our money is seen as being God's money. It is from God, and as disciples, we should use it for God's purposes and glory. We did not receive God's grace so that we might own more, or take the credit for God's work.

We have the resources of money, time and effort. This includes tithing, ser-



vice, giving and sharing. God gave us the choice to exercise our free

will and talents to utilize. Make the right choices of efficiency in time and effort. Never squander the gifts from God and use them wisely according to your set and setting of time, character, purposes and aspirations.

Be mindful of the resources working for you rather than you working for the resources. Consider the assets vs. lia-

bilities and credits vs. debits in your life's balance sheet. You want to be progressing financially, emotionally and spiritually rather than regressing. Prioritize what is important vs. urgent. Remove the obstacles and obligations that weigh you down. This will cause doubt, worries and unwanted pressure. Earn your provided freedom and remove the excuses.

Be purposeful in setting your goals and consistently ask how intune you are with your faith. Remember that money is only a tool, a very useful tool that should not be neglected. However, it should never become a goal to give your heart to. Your heart only belongs in one place, in Christ.

| Monica Kim |

“Alex jsn’s seminar reminded me that money is a tool that was never mine to begin with.” - Jane Kim

“Tithing is a way of showing that we love the Giver more than the gifts.” - Anonymous

“I want to be rich in God.” - Matthew Yang

“After hearing David Yang jsn’s seminar, I was challenged by his testimony to let go and let God.” - Elim Choi

“Father, I know that you listen to me—not because I deserve it but because your Son, Jesus, my great high priest, brings my needs before your throne and you hear them all for his sake. I lift my empty hands to you and ask that you fill them with your grace and help. Amen.” (Excerpt From "The Songs of Jesus(Ps.28:6-9)" Timothy Keller)

■ ICY Praise Night



‘God started a spark of revival in ICY’



Preparing for ICY Praise Night was such a rollercoaster. With 4 weeks of practice with the praise team, it felt like the night came in a blink of an eye. Although we practiced and prepared a lot, I felt like there was still something missing and that was prayer. The need of prayer for my heart and the hearts of the congregation became evident as I saw my lack of faith in God.

Just 30 minutes before, we experienced technical difficulties and that was when God tested me of my faith. I was overwhelmed with anxiety and clouded with fear, worried that things would go downhill. But all that disappeared once

Matthew opened us up in prayer.

As I was praising, I felt the presence of God desiring to capture the hearts of the congregation. Seeing God’s people raise their hands and surrender before God made me see how God truly moved during praise. Although the time of worship has ended, I believe that God started a spark of revival in ICY and I’m so excited to see what He will do in the future.

God showed me that night that there is so much power in prayer and it’s so clear He moved in ways I would have never expe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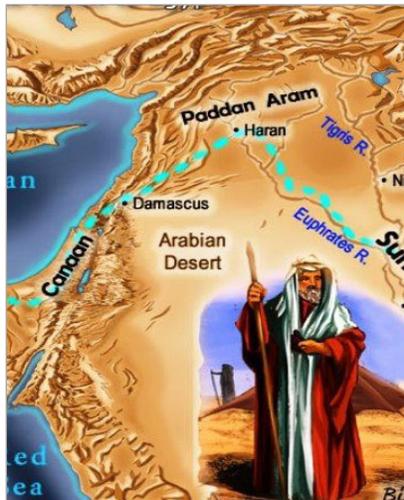
| Jane Lee |

■ 주안에빛 6기 개강

구약성경 맥잡기

대면예배의 시작과 함께 그동안 나태해졌던 삶과 느슨하게 풀려있을지도 모르는 믿음생활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주안에교회는 “성경의 맥 따라가기 구약편”을 “주안에 빛”이라는 타이틀로 정하고 대면으로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BP 채플은 6월 16일 부터 시작하였고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게되며 벨리 채플은 6월 18일 부터 시작되었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45분에 진



행된다. 양 채플 모두 13주간의 여정을 최혁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이끌어갈 예정이다.

구약의 시대별 정리를 배우는 첫 시간부터 조금은 아는 내용일지라도 긴장속에서 호기심을 풀어가기에 만족한 시간이었으며 벌써 다음시간을 기다리는 설렘이 인다.

일상의 회복과 함께 선물처럼 준비해 주신 “주안에빛” 전과정을 배워가면서 구약 39권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적용하는 건강한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 오희경 기자 |

■ ‘주안에씨앗’ 을 끝내고

■ 목장 소개/ 벨리 22목장

믿음의 삶, 핵심 소제

주안에씨앗 2기 훈련을 마치면서 나의 삶속에서는 또 한번의 감동이 요동쳤다. 주안에씨앗의 다섯가지 소제는



장삼덕 장로

이 땅에서 주안에살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근간이 되기 때문이었다.

지난달 주안에살 훈련 때, 이제는 이 훈련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이 세상 우리들은 사탄마귀와 옛사람 근성과 세상유혹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개인의 종말이 오던지, 우주적 종말이 올 때까지 성화의 길을 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그 길을 걷는 것이 주안에살이며 그 방법이 주안에씨앗 다섯가지라고 정리가 되었다.

주안에씨앗 다섯가지에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을 천만번을 들어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과 십자가 사건에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다, 사랑한다는 그 분의 말씀은 오 참으로 감격함으로 다가온다. 그 존귀하신 그 분이 내가 무엇이기 싫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모든 것을 포기 하셨는지!

이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교회”를 통하여 그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주안에살로 살아가기로 다짐을 해 본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탄마귀는 늘 기회만 보고 틈만 있으면 침투하리라. 그때마다 주안에씨앗 “기도”로 맞대응 하고 모든 삶과 행동의 기준을 “말씀”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천국가는 그날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만 신뢰하므로 이 땅에서의 기쁨과 저 천국에서의 그 영화로움의 누림을 소망해 본다.

‘벨리채플로 함께 이사, 새롭게 뭉쳤어요’

MP채플 4목장에서 섬기던 목원들 중 LA 지역에 거주하는 교인들이 교회 방침에 따라 벨리채플로 옮겨 새로이 벨리 22목장으로 편성되었다

목자 고용흠 안수집사/고하나 권사를 중심으로 강이순 권사, 강영환 집사, 권한나 집사, 김인수 권사, 김해정 권사, 나윤자 권사,



나형철 장로, 윤영란 권사, 이로서 집사, 이해경 집사 등이 구성원이다. “구면이지만 새로운 목장으로 거듭나니 협동심이 더 생기고 목장 모임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잘 뭉치게 되었다고” 고용흠 목자가 소개 한다.

MP 채플에 소속되어 있다가 벨리채플의 새 식구가 된 교인들을 환영하고 빠른 융합을 위한 교회의 배려에 따라 벨리채플과 BP채플의 여러 권사님들

께서 정성껏 준비한 아주 맛있고 풍성한 점심 식사를 3주나 대접 받고보니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한 식구가 된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기뻐하였다.

더욱이 교통편이 어려운 목원들을 위하여 벨리채플 안수 집사님들이 LA까지 매주 밴을 운전하고 오셔서 벨리채플로 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린다고 한다.

| 나형철 기자 |



■ 벨리 2권사회

대면예배에 맞춰 봉사와 기도 힘쓰기로

지난 일년넘게 팬데믹으로 인하여, 그동안 매월 마지막 토요일 아침 7시에 Zoom으로 제2권사회 월례회를 진행하다가, 지난 토요일 6월 26일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새벽기도모임 후에 브니엘카페 앞에서 오랜만에 모이게 되었다.

회장 이복희 권사의 시작기도, 서기

보고, 회계보고와 함께 현재 권사회에서 진행중인 여러 상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모임 후에는 주일 음식준비를 위하여 총총 걸음으로 부역으로 향하는 권사님들! 주안에교회 권사님들, 예수이름으로 모두 모두 축복합니다.

| 임용자 기자 |

■ 새가족/ 김현권 목사님 부부

■ 새가족/ 박민주 성도

짜장면을 만드시는 목사님

벨리채플에 처음보는 부부가 일을 하고 계셨다. 노년층의 권사들 일색중에 청일점 남자 분이 눈에 확 띄었다. 목소리도 내지 않고 손이 맞아 열심히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설새없이 재빠르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내심 놀라고 놀라왔다.

“저분들은 누구세요?” “EM 목사님 부부이세요.” “아, 2주전엔 소개시켜 주셨던 그 목사님 이세요?”



두 분이 주일 대면예배 축제를 위해 짜장면을 준비 하시는데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일하고 계셨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면서도 곁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들이 무거운 것을 들면 재빠르게 오셔서 들어 주신다.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모든 준비를 끝내신 목사님 부부는 일하고 있는 권사님들 속에서 또다른 일을 거드시느라 바쁘시다.

사모님은 말없이 일하면서 목사님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저 두 분은 얼마나 오랜시간,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해 오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일 정도로 손발이 맞는다.

부엌 안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

람 한 사람의 일을 보시고 하나도 흘러 보내지 않고 돕는 손길이 즉각 임할 때는 성령님의 사역을 돕고 있는 천사같은 생각이 들었다.

모든 권사들이 일을 끝낼 때 함께 부엌을 나서는 목사님 부부. 맡으신 음식을 위해서는 손수 장을 봐 오셔서 아침 일찍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일하는 부엌에서 만난 목사님은 김현권 목사님이 처음이다.

납작한 가자미를 튀김 옷을 입혀 튀기는 일을 요리에 익숙한 권사님들조차 기름 속에 풍덩 생선을 넣고 튀기기 마련인데 목사님께서는 생선 두마리를 양손에 잡고 두꺼운 머리 쪽을 먼저 튀겨내시고 전체를 기름 속에 넣으신다. 그 많은 가자미를 꾸준히 반복해서 튀기고 서 계셨다.

곁에서 권사로 두 분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오랫동안 두 분이 봉사해 오신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저 분들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겨 왔다는 것을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금방 알 수가 있었다.

주중에 일해서 돈을 벌고, 주말에 손수 요리해서 섬겨 온 모습을 쉽게 그려볼 수 있는 두 분의 섬김의 모습이 감동이었다.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낀 두 분의 겸손과 성실함이 깊이 느껴지는 수고하는 목회자였다. 목사님 부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고 섬세하신 것에 놀라게 된다.

하나님! 양을 섬기고 돌보는 목자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요? 대접 받기 보다 땀으로 성도를 대접하는 목자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주말이 기다려진다. | 이예스더 기자 |

말씀으로 깨어진 ‘종교생활’

타주에서 옮겨와 마음을 붙이기도 전에 불안하고 어수선한 코로나라는 상황을 맞아 꼼짝없이 집에 갇히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왜 필요한지를 조금이나마 체험을 하며 사막도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컴퓨터와 텔레비전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절제 없는 자유를 누리며 시간을 보냈다. 점점 정서가 불안해지고 감각들이 메말라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프로그램의 시청자가 되었고 예배를 통해서 먹어야할 영의 양식과 찢림은 감각이 둔해 멎해졌다.

그동안의 나와 함께 계셨던 나의 주님은 어디 가셨고 매일을 열심히 해왔던 신앙인의 모습은 어디에 숨어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이 온데간데 없고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이중적인 종교생활의 모습이 날날이 드러나는 나의 모습에 너무나 부끄러웠다.

“시편 23편 내영혼을 소생 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내 안에서 울부짖고 있을무렵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소생함을 느끼며 말씀이 점점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은혜의 생수가 나를 녹이기 시작했다 너무나 부담이 되었던 죄인의 모습이 눈물로는 감당이 되질 않았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회복과 평강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아쉬워 하며 예배가 끝이났다.

오랫동안 하나님 보다는 열심만 앞섰던 종교생활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산산히 깨지며 그아픔과 부끄러움의 거짓 찌꺼기들이 청소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다고 했던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아쉬웠고 목사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예배가 그리워지는 일주일 보내며 성전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허락을 받았다 성전에 들어가 앉는 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찬양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그분을 높이며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영원히 막아지지 않는 생수로 갈함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주 기대와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있다 주안에교회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아버지를 위한 시

아버지의 마음

<김현승>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에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
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 아버지의 동
포(同胞)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英雄)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깨끗한 피로...

■ 음악칼럼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가 '시온
성과 같은 교회(새210/통245)'의
멜로디는, 하이든이 1797년 오스
트리아 제국의 황제인 프란츠 2
세에게 헌정한 현악 4중주곡 <
황제> 2악장의 주요 테마이다.
이 선율은 찬송가 뿐만 아니라,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 독일
의 국가로도 사용되고 있다.



하이든(Franz Joseph Haydn)은 1732년 오스트리아에
서 태어났다. 8살부터 성 스테파노 성당의 소년합창단원
으로 활약하는데, 17살에 변성기를 맞아 더 이상 합창단
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자 작곡가로서의 입신을 꿈꾸
며 작곡 공부에 매진한다. 1761년부터는 에스테르하지 가
문에 고용되어 음악 감독으로 일하게 된다. 30여 년 동안
에스테르하지 가문의 음악가로 일한 그는, 1790년 은퇴한
후 비로소 자유롭게 창작에 전념하여 만년에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비롯한 다수의 명곡을 남긴다.

그는 1809년 77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그로부터 10년
후 묘지 이장 과정에서 누군가 시신을 훼손하고 머리 부
분을 훔쳐갔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조사 결과, 당시
유행했던 골상학(Phrenology)을 통해 하이든의 천재적
인 재능을 연구하고자 했던 이들의 소행으로 밝혀진다.
그러나 이미 그의 두개골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1,2
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여기저기로 팔려다니는 신세였던
그의 유골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반환소송을 제기한 끝에
145년 만인 1954년에 비로소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모차르트는 하이든을 파파라 부르며 존경했고, 베토벤
은 그의 제자이기도 했다. 평생에 걸쳐 성실히 노력하여
현악 4중주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100곡이 넘는 교향곡을
작곡하며 그 형식을 정립하였다. 그는 생전에 이미 교향
곡의 아버지로 불리우며 존경받았고, 사후에도 음악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하는데 이견이 없을만큼 독보적인
음악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 황성남 집사(성가대 지휘자) |

성경의 맥 따라가기 (구약편)

「주안에 빛」 6기

대상: 주안예배총 수료자

2021

신청: 5.30-6.13 (교외역)
BP채플: 6.16-9.8(수) 7:30PM
벨리채플: 6.18-9.10(금) 7:45PM

LIFE IN CHRIST

주안에 사 20 19기

훈련기간 6월 8일-7월 20일(화) 10AM (1,2,3권) Zoom
6월 12일-7월 24일(토) 7PM (2,3권) Zoom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민유선, 양하민, 이성은, 이예스터, 조 사이먼, 조용대(기자) / 양명, 최호기(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